

# 그리스도의 고난과 빌라도의 재판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고난’이라는 말은 어느 세대에나 인기가 없는 말이지만, 유독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맛보면서, 현대인들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조그만 불편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다. ‘재판’이라는 말도 우리에게서 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단어다. 특히 동양에서는 ‘법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재판정에 서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주일에서는 ‘고난’과 ‘재판’의 문제를 다루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분의 일생과 연결시키고, 빌라도에게 받은 재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예로 이야기한다. 회피하고 싶은 ‘고난’과 ‘재판’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이 두 용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고난을 받으사 (37문)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하면서 동정녀 탄생에서 곧장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간다. 자칫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은 모두 생략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에서는 ‘고난’을 그리스

도의 일생과 관련하여 가르친다.

37문: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한 후에 곧장 고난으로 넘어가므로, 그 사이의 지상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단지 처음과 마지막만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37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생의 마지막에 당하신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주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을 고난의 기간으로 가르친다.

1) 모든 기간에

예수님께서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겪으셨다. 하나님인 신 그분은 세상의 어느 왕궁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셨지만, 낮게 되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고후 8:9).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다. 입법자이신 분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갈 4:4-5).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으나(35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파묻혀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셨다(마 3:15). 그분에게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면서 먼저 죄인과 동일시되셨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인 성자께서

죄인과 같이 되어 세례를 받으신 일은 매우 낮아지신 사건이고 그분의 고난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소개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닌 성격을 명백하게 가르쳐 준다(요 1:29, 36). 그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처음부터 십자가로 향하고 계셨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각기 제 길을 갔지만, 그분은 잠잠히 성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다.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그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분이다(사 53:2). 곤욕과 심문을 당할 때에도 그분은 잠잠하셨다. 아무도 그 침묵의 의미를 몰랐으나 주님은 “형벌 받을 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의 일평생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그는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평생에 걸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예수님 당시의 집안의 모습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다)

보이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다(히 2:18; 4:15).

## 2) 몸과 영혼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는 그 전체성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몰이해와 백성의 무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가운데서 그 영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저 몰라서 맘 편히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의 음모도 진즉부터 아셨고,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도 미리 아셨다(요 6:70). 그러한 것을 아시는 그분은 영혼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말하자면,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사셨던 것이다.

예수님과 달리 둔감한 영혼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분이 겪으신 영혼의 고난을 다 알 수 없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것인 줄 아신 그분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셨다(막 14:34). 마르틴 루터 선생의 표현대로,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sup>1)</sup>

37문에서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십자가 형벌은 매우 잔인하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행되지 않았다.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에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게 하는 동안 더 큰

고통인 죽음을 서서히 맛보게 하였다. 이 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수단이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몸의 고난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몸의 고난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두 강도졸보다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들보다 고난을 덜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육체의 고통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그분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육신의 가족과 제자들은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어 나아가셨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하시면서 일하셨다.

그러한 주님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고후 5:21)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 3:17; 17:5)라고 선언하신 아들이지만, 그를 죄로 삼으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신 것이고, 이것이 아드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심 (38문)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定罪)를 받으셨으며, 5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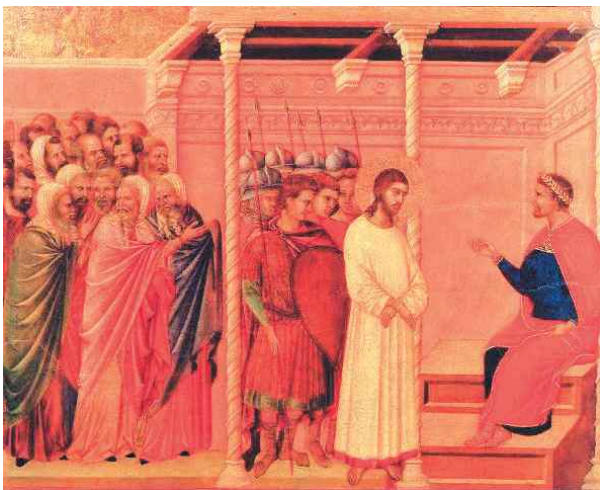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

1. M. Luther, WA, Vol.37, p.326.

### 1) 빌라도의 재판의 성격

사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총독이 아니었지만 사도신경에 이름이 오름으로써 유명해졌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있었고, 주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있었지만, 사도신경은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왜 짧은 사도신경에서 유독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2)</sup>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명백히 하는 면이 있다. 그 당대의 통치자 이름과 함께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십자가 형벌을 허락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공식 거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다.<sup>3)</sup>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DUCCIO 작, 13-14세기)

둘째,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적인 성격을 잘 나타낸다. 로마는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세웠고 법률을

잘 정비하여 제국의 통일을 이루었으며, 로마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의 총독이던 빌라도는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고 빌라도의 죄를 지적하셨다(요 19:11). 빌라도도 이 점에서 유죄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38문에서 가르치려는 것은 빌라도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적인 성격’이다. 스테반의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였고 세례 요한은 헤롯이 사적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는 헤롯과 공회뿐 아니라 빌라도도 참여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공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 시대의 세상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므로써 그분의 죽음이 지닌 공적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셋째, 짧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세상의 법정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밝히고, ‘빌라도의 재판’은 바로 ‘하나님의 재판’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대하 19:6, 참조, 시 82:1) 하는 말씀처럼, 재판관은 그 직분을 행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재판을 나타내야 한다. 나라의 공직자들도 하나님의 사자(使者)라는 점에서, 빌라도의 재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요 19:11)라고 말씀하시므로써 빌라도의 재판이 곧 하나님의 재판임을 인정하셨다. 말하자면,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께서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 계셨던 것이다.

### 2) 무죄 판결과 대속의 죽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는 세 가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이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요 18:38; 19:4, 6; 눅 23:4, 14, 22) 하는 말을 세 번 반복하였고, 또한 손을 씻음으로써 그 재

2. 『빌라도 보고서』라는 소책자가 있다. 이 책자는 성경의 내용보다는 빌라도가 썼다고 하는 보고서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3. J.N.D. Kelly, *Early Christian Creed*, pp. 149-150.

판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채찍질하여서 놓아주려고도 하였고,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놓아주려고도 하였으며, 헤롯에게 보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 주었다.

셋째는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셨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정을 사용하여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를 찾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고 잠잠히 그 형을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재판이 하나님의 공적인 재판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공회와 헤롯만이 아니라 빌라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행 4:26-28).

###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고난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시던 모든 시기 동안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고 한숨처럼 사라진다(시 90:3-10).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참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사 53:6)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친히 그 아드님의 죄 없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으로 선언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양에게 세상 죄를 다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일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고 나아가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도 받고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것처럼(딤후 6:12-13),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